

'임실치즈 아버지' 故 지정환 신부 추모 순창으로 떠나는 참두릅 여행

헌신·업적 기리는

제7주기 추모행사 열려

대한민국 치즈의 수도 임실군을 있게 한 임실치즈의 아버지 故 지정환 신부의 헌신과 업적을 기리는 제7주기 추모행사가 열렸다.

지난 12일 열린 추모행사에는 심 민군수를 비롯해 지정환 신부님과 함께 치즈 제조에 헌신해 온 관계자, 치즈 마을 주민 등 30여 명이 참석해 고인의 뜻을 기렸다.

이번 행사는 임실성당 사목협의회 주관으로 진행됐으며, 추모사와 故 지정환 신부 생애를 담은 영상 상영, 추모 공연 등이 이어지며 협동과 나눔의 가치를 되새기는 뜻깊은 시간으로 마련됐다.

벨기에 출신인 故 지정환 신부는 1964년 임실성당 주임신부로 부임한 이후, 가난의 골레를 벗어나지 못하던 임실 주민들의 삶을 개선하기 위해 산양 두 마리의 젖으로 치즈를 만들기 시작했다.

이후 3년간의 시행착오 끝에 1967년



대한민국 치즈의 수도 임실군을 있게 한 임실치즈의 아버지 故 지정환 신부의 헌신과 업적을 기리는 제7주기 추모행사가 열렸다.

마침내 치즈 개발에 성공하며 오늘날 임실치즈산업의 기틀을 마련했고, 임실을 대한민국 치즈의 수도로 도약시킨 선구자로 평가받고 있다.

60여 년이 지난 현재, 임실군은 신선 치즈와 숙성치즈, 발효유, 무가당 요거트 등 다양한 유제품을 생산하는 '임실N치즈' 브랜드를 중심으로 전국적인 경쟁력을 확보하며 명실상부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치즈의 고장으로 자리매김했다.

군은 이에 머무르지 않고, 지정환 신부가 다져놓은 기반위에 치즈산업의

고도화를 위한 새로운 도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기존 홀스타인 젖소의 원유 중심의 생산구조에서 나아가, 유단백과 유지방 함량이 높아 영구 황실에도 공급되었다고 하는 저지중 젖소의 원유를 활용한 프리미엄 유제품 생산을 확대해 차별화된 경쟁력을 확보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임실N치즈'를 테마로 한 임실N치즈축제는 대한민국 최초의 치즈 역사를 기념하는 대표축제로 성장해 왔다. /임실=진홍영 기자

우선신호제어시스템으로 골든타임 확보

남원소방서, 시스템 적극 활용 뇌졸중 의심 환자 생명 지켜내

남원소방서 구급대원들이 신속한 응급처치와 '긴급자동차 우선신호제어 시스템'의 적극적인 활용으로 뇌졸중 의심 환자의 골든타임을 완벽하게 지켜내며 소중한 생명을 구했다.

지난 13일 오후 5시 40분경, 남원시 노암동의 한 식품공장에서 방글리데시 국적의 30대 근로자 A씨가 갑자기 쓰러졌다는 다급한 신고가 접수됐다. 최초 신고는 심정지가 의심되는 위급한 상황이었다.

신고 접수 불과 8분 만에 현장에 도착한 남원소방서 용성119안전센터 구급대원들은 환자의 상태가 예상처럼



양음을 직감, 의식 장애와 함께 좌측 편마비, 구음장애(발음 이상) 등 급성 뇌졸중의 전형적인 증상이 나타나고 있었던 것. 구급대원들의 빠르고 정확한

한 현장 평가가 빛을 발하는 순간이었다.

이때 남원소방서의 기지가 발휘되며 구급상황관리센터와의 긴밀한 공조를 통해 이중119안전센터 구급차를 출동시켜 동전주에서 점선하는 이송 작전을 펼친과 동시에, 도심 진입 시 환자 이송의 핵심 키(Key)인 긴급자동차 우선신호제어시스템을 적극 활용한 것이다.

결과는 오후 6시 35분경 동전주에서 이중 구급대와 합류한 이송팀은, 막 막힌 도심 교차로들을 정지 없이 통과하며 단 5분 만인 오후 6시 40분에 전북대병원 응급실에 도착, 일분일초를 다투는 뇌경색(뇌졸중) 환자에게 평소라면 상상하기 힘든 이송 시간을 기록하며 '도로 위의 모세의 기적'을 펼친 시스템으로 구현해 낸 것이다.

/남원=김기두 기자

임실군-한국애견연맹, 업무협약 체결

임실군은 (사)한국애견연맹과 반려동물 문화 확산 및 협력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반려기구 증가에 발맞춰 전문적이고 국제적인 반려동물 콘텐츠를 도입하고, 이를 통해 지역 관

광과 산업을 동시에 활성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국제 어질리티 경기대회 및 도그쇼 개최, △반려동물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 협력 △반려문화 확산 및 산업 활성화를 위한 공동 홍보 △지속적인 교류 및



실무 협력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추진하게 된다.

/임실=진홍영 기자

순창군, 체험형 농특산물 축제 17~18일 경천 일원서 개최

순창군은 봄철 대표 임산물인 참두릅을 주제로 한 특별한 봄맞이 행사 '제2회 순창 참두릅 여행'을 오는 4월 17일부터 18일까지 이틀간 경천 일원에서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순창군 대표 봄나물인 참두릅을 중심으로 다양한 봄나물과 농특산물을 한자리에서 만나볼 수 있는 체험형 농특산물 축제, 산림조합과 농협, 임산물 생산 농가 등 30여 개 단체가 참여해 풍성한 볼거리와 먹거리를 제공할 예정이다.

특히 행사장 일원인 경천에는 현재 수선화와 튼질이 만개해 봄 정취를 한껏 느낄 수 있으며, 음악분수도 설치돼 완료해 방문객들에게 꽃과 음악이 어우러진 특별한 봄나들이 공간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행사 기간 동안 방문객들은 향긋한 참두릅을 비롯해 고사리, 미나리 등 계절 봄나물을 직접 구매할 수 있으며, 두릅 장아찌 만들기 체험, 두릅 액세서리 만들기 체험 등 가족 단위 관광객을 위한 다양한 참여 프로그램도 함께 운영된다.

또한 산나물 비빔밥, 두릅전, 두릅튀



김 등 봄의 맛을 즐길 수 있는 먹거리 장터와 함께 국악·난타·밴드 공연 등 다채로운 문화공연이 펼쳐져 방문객들에게 특별한 봄날의 추억을 선사할 예정이다.

이틀러 3만 원 이상 참두릅 구매 시 추가 증정 이벤트와 볼레트 경품행사 등 다양한 현장 참여 프로그램도 마련돼 축제의 즐거움을 더할 계획이다.

한편 이번 행사는 4월 17일 오전 11시 개장식을 시작으로 이틀간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운영될 예정이다. /순창=이양원 기자

남원시, 춘향제 맞아 친절·위생 긴밀 협력체계 구축

남원시가 오는 30일부터 5월 6일까지 개최되는 제96회 춘향제의 성공적인 개최와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유관 단체들과 긴밀한 협력 체계를 구축했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14일, 한국외식업중앙회 남원시지부(이하 남원시외식업지부) 및 대한숙박업중앙회 남원시지부와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축제 기간 관광객이 신뢰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다짐했다.

이에 따라 각 단체 회원들은 축제 기간 중 진행되는 '춘향 페스티벌', '숙박요금 사전고지제' 등에 적극 동참해 가격의 안정을 위해 앞장서기로 했다.



또한 시는 친절·위생·가격 안정이 정착된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오는 27일, 남원시외식업지부 위생교육 일정에 맞춰 '부담요금 근절 결의 행사'를 진행, 이를 통해 지역 소상공인 스스로 정착한 가격과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겠다는 의지를 대내외에 다짐 계획이다. /남원=김기두 기자

남원시, 춘향제 기간 셔틀버스 4개 노선 무료 운행

남원시는 제96회 춘향제 기간 축제장을 찾는 방문객들의 교통 편의를 위해 오는 30일부터 5월 6일까지 셔틀버스 4개 노선을 무료로 운행한다고 밝혔다.

셔틀버스는 관현루원, 차 없는 거리 등 주요 행사장과 남원종합스포츠타운, 남원역, 임시주차장 등 주요 교통 거점을 유기적으로 연결하도록 구성해 대중교통 이용객은 물론 자가용 방

문객까지 누구나 불편함 없이 축제장을 방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총 4개 노선으로 운영되는 구간은 △1노선(남원종합스포츠타운→천주교 로타리) △2노선(남원역→승사교) △3노선(그네 매점→승사교) △4노선(바 이오산연연구원→승사교) 등이며, 운행 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11시까지로 약 15~30분 간격으로 순환 운행된다. /남원=김기두 기자

지역 소식통

'순창에서 살아보기' 프로그램 참가자 모집

순창군이 귀농·귀촌을 희망하는 도시민들에게 농촌 생활을 직접 체험할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순창에서 살아보기' 프로그램 참가자를 모집한다.

이번 사업은 귀농·귀촌을 계획 중인 예비 정착 희망자들이 실제 이주에 앞서 순창의 생활 환경과 농촌 문화를 미리 경험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단기 거주 체험 프로그램이다.

신청 자격은 타 지역에 거주하는 만 20세 이상 65세 이하 도시민이면 가능하다. 특히 순창군으로의 귀농·귀촌 의지가 있는 2인 이상 직계가족 세대를 우선 선발해 가족 단위 안정적인 정착을 유도할 계획이다.

프로그램은 단순한 숙박 지원에 그치지 않고 지역 주요 관광지 탐방과 로컬푸드 체험, 주민들과의 교류 활동 등을 포함해 예비 귀농·귀촌인들이 실제 정착 가능성을 깊이 있게 검토할 수 있도록 구성됐다.

참가 신청은 오는 17일까지 가능하며, 순창군 귀농귀촌지원센터(풍산면 금풍로 1013)를 방문하거나 이메일(imssol@korea.kr)을 통해 접수할 수 있다. /순창=이양원 기자

순창군, 진드기 매개 감염병 주의 당부

순창군은 봄철 야외 활동이 늘어남에 따라 진드기 매개 감염병에 대한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진드기 매개 감염병은 농작업 등 야외 활동 시 풀밭 등에서 서식하는 진드기에 물려 감염되며, 2주 이내 발열·오한·구토·설사·발진 등의 증상을 동반한다. 대표적으로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SFTS)과 쯤쯤기두시증 등이 있으며, 특히 SFTS는 치명률이 높아 중증 진행 시 사망에 이를 수 있으므로, 진드기에 물리지 않도록 예방수칙을 준수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진드기 매개 감염병의 주요 예방수칙은 농작업 시 긴 옷 착용하여 피부 노출하지 않기, 기피제 사용하기, 풀밭 위에 옷 벗어 두거나 눕지 않기, 외출 후 샤워하기, 입었던 옷 세탁하기, 몸에 진드기 붙어 있는지 확인하기 등이 있다. /순창=이양원 기자

대한민국 치즈의 수도
임실치즈

벨기에 출신 지정환 신부(Didier l'Serstevens)가 국내 최초로 개발 보급한 한국 치즈산업의 원조 임실치즈, 신선한 원유와 40년 이상의 가공기술력으로 만든 임실치즈는 맛이 고소하고 담백하여 어린이, 노약자의 영양간식으로 매우 좋습니다.